

음악처럼 감미롭게, 이 남자가 사는 법

뜻

뜻한 새신랑이 된 지 이제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은 뮤직시티의 이승원(31) 대리. '김치찌개만 많이 먹는 중'이라는 미니홈피 제목에서도 느낄 수 있듯 그의 미니홈피 (cyworld.nate.com/ayoo75)에는 결혼생활에 대한 설렘과 신혼의 아자자기가 곳곳에 배어나온다.

그는 대형매장에 배경음악 서비스를 제공하는 벤처기업 뮤직시티에서 DB 기획과 음악선곡을 하는 뮤직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다. 뮤직마케팅이란 한마디로 시간대별, 장소별, 업소별로 배경음악을 차별화해 고객의 구매심리를 자극하는 것. 때문에 하루 종일 온갖 음악 속에 파묻혀 지내지만, 어렸을 적부터 워낙 음악을 좋아했던 터라 자신에게 이보다 더 신나는 일터도 없을 것이라며 사람 좋게 웃는다.

이승원 대리의 음악사랑은 그의 미니홈피에도 여실히 나타난다. 알콩달콩 살아가는 신혼생활을 자랑하고픈 마음이 생길 법도 한데, 아직 홈피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주인공은 바로 그의 영원한 연인, 음악이다.

"3년 전, 홈피를 처음 꾸미기 시작할 때도 거의 음악 이야기가 주를 이뤘어요. 좋아하는 음악에 앨범 리뷰, 신보 소개까지... 누가 음악회사 직원 아니랄까봐, 주변에 늘 음악을 달고 살았네요(웃음)."

5000장 정도의 음반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승원 대리는 현재 그의 미니홈피를 통해 '내 주관적인 명반기행', 'Future Music', '힙합, 하드코어 명반', '신보음반리스트' 등 음악과 관련

된 수많은 이야깃거리를 생산해내며 음악을 사랑하는 많은 이들과 공감하고 있다.

언젠가는 근사한 가족홈피도 만들어보고 싶다는 그. 마냥 부드러워 보이기만 한 외모의 소유자이지만 고등학교 때 힙합동아리에서 활동했을 정도로 열정적인 사람이다.

"미니홈피를 통해 그동안 소식이 끊겼던 친구들과 연락이 많이 닿았어요. 그만큼 저에게는 소중한 공간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음악을 널리 알리고 저 역시 타인의 취향을 기웃거리는 재미가 있죠."

음악은 더 이상 '취미'가 아니라 '생활'이 되었기에 요즘은 새로운 취미생활을 찾고 있다는 그는 피규어(프라모델) 수집에도 일가견이 있다. 시간 날 때마다 조립하고 색칠해 모은 피규어가 거의 100여 개에 달한다고. 피규어를 찍어 홈피에 올리는 재미도 쏠쏠하지만, 그래도 그에겐 역시 음악이 우선이다.

자신을 적극적으로 알리며 홍보하는 것이 낯설지 않은 요즘, 이승원 대리는 음악으로 세상과 소통하며 살아가고 있다.

